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최첨단 혈관조영장비 도입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인터벤션 시술(중재적 시술)에 사용되는 최첨단 영상장비인 지멘스사의 ‘아티스 큐 실링(Artis Q Ceiling)’과 심혈관 조영장치 ‘아티스 원(Artis One)’을 새롭게 도입해 가동식을 했다.

인터벤션 시술은 첨단 영상장비를 이용해 간암, 투석혈관, 자궁근종, 팔다리 혈관 질환 및 심장혈관 질환을 수술하지 않고 미세 침습적으로 치료하는 혁신적인 시술 방법이다.

‘아티스 큐’ 시스템의 큰 장점은 최첨단 피폭선량 감소 기술과 혁신적인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뛰어난 영상 품질이다.

특히, 실질 혈류량을 측정할 수 있는 PBV(Parenchymal Blood Volume) 기능과 색전술 유도기능(Embolization Guidance)이 장착되어 있어, 간암의 간 동맥 화학색전술의 시술 시 보다 정확하고 빠른 시술이 가능하다.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대한연골 및 골관절염학회장 선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가 지난 28일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된 2018년도 제2차 대한연골 및 골관절염정기학술대회에서 2018년도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월부터 1년이다.

임균일 교수는 현재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부회장, 세계골관절염 연구학회(OARSI)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정형외과연구학회연맹(ICORS)차기회장, 한국생체재료학회 차기회장에 선임됐다.

대한연골 및 골관절염학회는 2007년 창립된 학회로, 연골과 관련 질환 및 골관절염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참여로, 국내 학문적 수준 향상과 국제교류를 통해 환자치료에 기여하고자 목적을 둔 이 분야 대표의 국내학회이다.

응급의료센터 진료 환경 개선 공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응급환자의 신속 정확한 치료와 편의성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시스템 개선공사를 실시했다.

이번 공사는 응급환자의 신속 정확한 치료와 편의성에 최대 중점을 두고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응급실 시스템을 구축했다.

먼저 응급실 출입구에서부터 동선을 고려해 일반 응급환자와 보행자를 위한 전용 출입구와, 구급차 전용 환자 출입구로 구분했다. 진료 구역은 환자 상태에 맞춰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진료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중증환자와 일반 환자 등을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안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의료진, 환자, 보호자 1명만이 응급의료센터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분류했으며, 보호자 대기실과 진료공간을 구분해 혼잡도를 크게 줄임과 동시에 환자들에 대한 치료 집중도를 높였다.

특히,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이번 개선공사에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둔 것은 ‘응급실 진료 프로세스 선진화시스템’이다.

환자 보호자는 대기실 모니터를 통해 응급환자의 진료, 검사시간, 치료시간, 입원·퇴원 결정 등 진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한의진료센터 참가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에서 한의진료를 펼쳤다.

전국 13개 한방 병·의원 소속 24명의 한의사가 본 홍보 및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의진료센터(Korear Medical Center)’에서 전세계 취재진에게 한의치료와 상담을 진행했다.

참가국 선수를 비롯해 외국 취재진과 방문객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최초로 개설된 한의진료소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하여 모인 전 세계 기자들을 대상으로 침, 부항, 추나요법 등을 시연했다.

특히, 본원에서는 추나 요법 전문의가 참가해 전 세계 취재진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